

# 한중 고등교육 교류의 현황과 과제

李庚子\*

##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한중 고등교육 교류의 현황
  - 2.1 학생교류
  - 2.2 대학간 교류
  - 2.3 기타: 언어교육 교류
3. 한중 고등교육 교류의 과제
4. 나오는 말

## 1. 들어가는 말

무한 경쟁의 국제 관계 속에서, 인재 양성과 인재 유치는 국가의 지위와 영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간 교육교류는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미 국가간·지역간의 경쟁과 협력은 농업, 공업 등의 영역에서 인재자원 영역으로 전환하였다. 예를 들어, 과거 싱가포르 정부는 수조 원의 예산을 교육 발전에 투자하여, 싱가포르의 대학(싱가포르국립대, 난양공대, 싱가포르 경영대학)을 모두 세계 100대 대학에 포함시켰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였다. 미국의 경우, 외국인 유치사업이 미국 5개 서비스 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다.<sup>1)</sup> 이처럼 많은 국가가 교육에 매진

\* 경상대학교 교육학과 부교수.

1)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 핵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민법 개혁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100만 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를 8년 내에 합법적 영주권자로 전환하는 내용

하는 것은 그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IDP Australia는 2025년에 전 세계 국제교육시장의 수요자가 700만 명에 이르고, 이에 따른 경제효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sup>2)</sup> 특히, 고등 교육시장의 개방은 국제화 시대를 수용하고 대처하는 자세이며 새로운 가치관과 태도, 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력을 배출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이런 추세는 한국과 중국 간에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과 중국은 오래전부터 지정학적·역사적·문화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양국간의 교류가 시작된 시점은 늦어도 상말주초(商末周初)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진행된 시점은 삼국시대부터라고 보고 있다. 삼국시대의 교육교류는 유교사상과 한자가 전래되면서 경전을 익혀 당(唐)의 과거에 급제하는 것과 불교를 공부하기 위한 승려들의 유학으로 특징지어진다. 이후 고려시대 송(宋)과의 교류는 양국간 사신 및 상인의 왕래, 중국 국가감의 입학생과 불승의 교류가 주류를 이루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중국으로 공부하러 간 사람들은 정식교육기관에서 유학, 한학을 공부하기 보다는 외교관계에 필요한 언어를 학습하거나, 개인적으로 중국에 체류하면서 서적 등을 들여오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sup>3)</sup> 1992년에 한중 수교가 성사된 이후에는 경제, 문화, 사회 등 전 분야의 교류가 급격히 확대하여 양적, 질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유학생 교류의 경우 2001년 6,000명에 그쳤던 재한 중국유학생은 2011년 59,317명으로 약 9.9배 증가하였다. 재중 한국 유학생은 2001년 16,000명에서 2010년 62,442명으로 3.9배 증가했다.

한국 경제에서 중국의 지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한중 교역규모가 22배 증가한 것에서 시작하여 2010년에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이 4만에

의 이민법안을 마련 중이라고 USA투데이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경향신문, 2013년 2월 17일).

2) 김덕삼, <戰國時期 稷下學宮을 통해 본 韓國 大學改革의 과제>, 《중국연구》(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2011), 9쪽. 2013년 3월에 인천 송도에 개교한 뉴욕주립대 분교는 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모두 갖춘 한국 최초의 외국대학 분교다.

3) 이경자, <韓·中 教育交流에 관한 研究>, 《東洋古典研究》(서울: 東洋古典學會, 2007), 304-324쪽.

이르렀다.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국가로 부상했다. 이처럼 한국 경제에서 중국은 영향력이 강대해졌다. 교육교류 측면에서도 한중 양 국가는 1992년 수교 이후 상호 교류 및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1994년 3월, 양국은 '교사, 학자 및 전문가의 교류, 양국의 고등교육기관교류와 합작, 문화공동위원회'를 주요 내용으로 한중문화교류협의를 협정했다. 한중 양국의 교육부는 협의를 통해 1995년 7월 북경에서 <대한민국교육부교육교류와 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 합작협약>을 체결하였다. 협약 내용은 양국은 매년 최대 6명의 대표와 최대 5명의 교수와 전문가를 파견 보내며, 최대 40명의 학생이 장학금 보조를 받도록 하고, 양국이 각각 '한국어능력고사'와 '중국어능력고사'를 실시하는 것 등이 다. 1998년 3월에는 문서교환형식으로 <대한민국교육부와 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의 1998-2000 교육교류와 협력협약>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1년도 <대한민국교육부와 중화인민공화국교육부의 2001-2003 교육교류와 협력협약>에 합의하였다. 2011년에는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학위 인정 지역협약 개정안>을 채택하면서 추후 아태지역 특히 중국과의 고등교육 교류가 더 경쟁력을 발휘할 것이다.<sup>4)</sup>

지난 시간 동안 고등교육 방면에서 눈부신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 이제 성년으로 성장하는 시점에서 지난 시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발전적 관계를 모색해 보는 것은 나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고등교육은 교육에 있어서 비중이 높고, 교육의 파생효과에서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중 고등교육의 현황을 중심으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 학교, 어학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양국의 고등교육 교류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발전적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4) 한국은 1983년 협약의 서명국이자 아태지역의 주요 선진국으로서 아태지역 고등교육 교류를 주도하고 고등교육 국제교류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동 협약 개정에 적극 참여하였다. 본 협약을 계기로 부실 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무분별한 학위인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아태지역 국가 공동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학위에 대한 질 관리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이 한층 더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http://www.moe.go.kr>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학위 인정 지역협약 개정(보도자료) 검색일 2013년 5월 14일).

이를 위해 한국과 중국의 통계자료 및 정책보고서, 정부 보고, 각 국가의 교육부 홈페이지 및 관련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였다. 한중 고등교육교류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에서 한중 각 동일 연도의 수치가 제시되어 양국의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지만 중국의 최근 통계자료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한국은 2012년까지의 자료를 중국은 2011년까지로 제한하였다.

## 2. 한중 고등교육 교류의 현황

### 2.1 학생 교류

#### 2.1.1 한국내 중국인 유학생 현황

지난 10년간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3년 12,314명이었던 것이 2011년에는 89,537명으로 무려 7배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학생의 출신 국가가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중국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유학생 증가율을 보면 2003년에서 2004년 4,518명이 증가하고 2006년에서 2007년 16,746명으로 정점을 이루다가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심지어 2012년에는 2,659명이 감소하였다.

〈표 1〉 연도별 유학생 수(2012.4.기준 집계)

(단위: 명)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유학 생수	12,314	16,812	22,512	32,512	49,212	63,912	76,012	83,712	89,537	86,812

※ '03년도까지는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조사하였고, '04년도부터 전문대학, 4년제대학, 대학원대학, 원격대학,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모두 조사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을 형태별로 구분해보면 자비유학생이 가장 많고, 대학초청 장학생이 두 번째로 많다. 2010년도에 자비 유학생의 경우 71,843 명이던 것이 2011년엔 75,325명으로 1년 사이 3,482명이 증가하였으며, 2012년에는 73,321명으로 2011년에 비해 2,004명이 감소하였다. 자매결연의 증가로 교환학생수가 늘어난 반면 최근 유학생관리의 강화, 아시아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감소한 것으로 보이거나 이는 추후 추세를 지속적으로 살펴 보고 진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초청 유학생의 경우 대부분이 교환학생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정부초청장학생, 자국정부파견장학생은 다소 증가했지만 전체적으로 2012년의 통계자료는 2011년에 비해 2,659명이 감소하였다.

〈표 2〉 형태별 유학생 수(2012.4.기준 집계)

(단위: 명)

유 학 형 태	2011년도	2012년도	증감
자비유학생	75,325	73,321	-2,004
정부초청장학생	2,513	2,944	431
대학초청장학생	8,504	8,207	-297
자국정부파견장학생	573	610	37
기타	2,622	1,796	-826
합 계	89,537	86,878	-2,659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2011년, 2012년을 기준으로 한국에 있는 유학생을 출신 국가별로 구분해 보면 <표 3과 같다. 2011년 통계자료에 의한 외국인 유학생 89,537명 중에 중국 유학생이 59,317(66.2%), 일본 4,520명(5%), 몽골 3,699명(4.1%), 미국 2,707명(3%), 베트남 2,325명(2.6%), 대만 1,574명(1.8%)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국가 15,395명 (17.2%)으로 중국 유학생이 외국 유학생의 6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통계자료의 경우도 중국 유학생이

55,427(63.8%), 일본 4,093(4.7%), 몽골 3,797(4.4%), 미국 2,665(3.1%), 베트남 2,447(2.8%), 대만 1,510(1.7%) 순으로 나타났고 기타 국가 16,939(19.5%)명으로 순위로 보았을 때 2011년의 통계자료와 동일하나 전체 유학생수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가별로 보았을 때 몽골과 베트남 학생이 증가한 반면 기타 국가는 모두 감소하였다.

〈표 3〉 국가별 유학생 수

국가별 유학생수(2011.4 기준 집계)								
국가	중국	일본	몽골	미국	베트남	대만	기타	계
학생수 (명)	59,317	4,520	3,699	2,707	2,325	1,574	15,395	89,537
비율 (%)	66.2	5.0	4.1	3.0	2.6	1.8	17.2	100
국가별 유학생수(2012.4 기준 집계)								
국가	중국	일본	몽골	미국	베트남	대만	기타	계
학생수 (명)	55,427	4,093	3,797	2,665	2,447	1,510	16,939	86,878
비율 (%)	63.8	4.7	4.4	3.1	2.8	1.7	19.5	100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유학생 중 중국 유학생이 60%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는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 중국 경제의 발전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개혁개방이후 계속된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은 중국뿐만 아니라 국외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유학을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교육의 대중화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수요 증가가 외국 유학으로 이어졌다. 중국 개혁개방이 시작된 1978년부터 2008년 말까지 해외 유학을 떠난 중국 학생은 약 140만(정확히는 139만 1500) 명에 달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1978년 당시 해외 유학자는 860명에 불과하였으나 30년이 경과한

2008년 한 해에만 18만 명이 해외 유학을 떠나 무려 209배나 폭증했다.

셋째, 이러한 토대 위에 중국의 고등교육은 국제화와 대중화의 길을 걷게 되었고, 이에 힘입어 경제적으로 부담이 적고, 문화적으로 충격이 적으면서, 한류와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영향이 한국으로의 유학을 선택하게 하였다.

넷째, 한국 고등교육기관의 대학 충원을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대학의 적극적 유치를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미 2010년에 2012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10만명 시대를 열기 위해 종합대책을 내놓고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유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중 일부는 관련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확대방안, 우수교육기관의 전략적 유치, 외국교육기관의 자생력 강화, 질 관리를 통한 외국교육기관 운영 내실화 등이다.<sup>5)</sup>

물론 중국 유학생의 증가는 한국뿐만이 아닌 세계적인 추세다. 고등교육 과정을 공부하는 중국 유학생은 일본에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호주, 캐나다, 독일 순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한국으로 유학을 오려는 중국 유학생의 수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한국에서 외국 유학생 중 중국 유학생이 가장 많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유학생 증가율이 왜 감소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추후 유학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우수학생 유치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2.1.2 중국내 한국인 유학생 현황

2010년 <The Times>가 선정한 세계 200위 대학 6개 대학이 포함된 중국은 2010년 세계 조선 1위, 자동차 제조 1위, 4년 연속 미국 달러 최대 보유국으로 급성장하여 곧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망 아래, 전 세계 많은 학생들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고 있으며, 세계 각 정부도 중국 전문가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더하여 예전과 달리 중국 유학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성공 사례

5) 교육과학기술부, <정부, 외국교육기관 국내 유치 활성화 본격 추진-우선, 6개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 초점>, 보도자료, 2011. 12. 21.

가 늘어나면서 2010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유학중인 외국인 수는 약 292,611명에 이르렀다. <표 4>와 같이 중국유학을 선택하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3년 77,715명에서 2010년 265,090명으로 약 3.4배 증가하였다.

〈표 4〉 연도별 유학생 수<sup>6)</sup>

(단위: 명)

연도	2003	2004	2005	2006
유학 생수	77,715	110,844	141,087	162,695
	2007	2008	2009	2010
	195,503	223,499	238,184	265,090

형태별 유학생 수를 보면 자비유학생이 2010년 242,700명, 2011년 266,924명으로 중국정부장학금 수혜학생보다 현저하게 많다.

〈표 5〉 형태별 유학생 수<sup>7)</sup>

(단위: 명)

유 학 형 태	2010년	2011년	증감
자비유학생	242,700	266,924	24,224
중국정부장학금 수혜학생	22,390	25,687	3,297
합 계	265,090	292,611	27,521

또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을 찾는 유학생의 국적도 다양하게 증가하였다. 2003년 175개국에서 2010년 194국으로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이 중국에 유학하고 있다.

6) <http://www.moe.gov.cn>. 검색기간 2013.04.01-2013.06.30. 教育部國際合作与交流司에서 제시한 내용을 연도별로 재정리함.

<http://www.chinanews.com>. 검색기간 2013.04.01-2013.06.30.

<http://studyinchina.moe.edu.cn>. 검색기간 2013.04.01-2013.06.30.

7) <http://studyinchina.moe.edu.cn>. 검색기간 2013.04.01-2013.06.30.

<http://news.xinhuanet.com>. 검색기간 2013.04.01-2013.06.30.

2010년도의 국가별 유학생수를 보면 한국이 62,424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미국 23,292, 일본 17,961 태국 14,145 베트남 13,549, 러시아 13,340 인도네시아 10,957, 기타 136,925 순이다. 유학생수를 보면 한국이 62,424명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 미국 23,292, 일본 17,961 태국 14,145 베트남 13,549, 러시아 13,340 인도네시아 10,957, 기타 136,925 순이다.

〈표 6〉 국가별 유학생 수<sup>8)</sup>

구분	한국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기타	합계
학생수 (명)	62,442	23,292	17,961	14,145	13,549	13,340	10,957	136,925	292,611
비율 (%)	21.3	8.0	6.1	4.8	4.6	4.5	3.7	46.8	99.8

1990년대 중반까지 중국 내 한국 유학생은 그리 많지 않았다. 당시 한국 유학생들은 일본 유학생들보다 적었다. 2001년에 중국 내 한국 유학생은 22,116명이었다. 2010년에는 62,442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 가운데 한국 유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1.3%로 가장 높다. 이는 2위인 미국 23,292명과 3위인 일본 17,961명의 유학생을 합친 것보다 훨씬 많다.

1990년 중국의 본격화된 개혁, 개방정책 이후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은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1990년대 초기엔 중국의 값싼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활용이 목적이었으나 갈수록 성장하는 중국 경제와 넓은 중국 시장으로 인해 그 활용 목적이 바뀌었으며,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기업 진출의 증가는 한국 유학생의 중국 유학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중국교육부는 '국가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전 계획 강요'에 따라 '중국유학계획'과 같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을 펼쳤다. 더불어 각 대학들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속적으로 중국의 유학 환경을 더 발전시키고, 질서 있는 관리를 중시하여

8) <http://news.xinhuanet.com>. 검색기간 2013.04.01-2013.06.30.

유학생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며, 2020년까지 중국 내 외국인 유학생 수를 50만 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한 세계 여러 나라의 학생들이 아시아에서 가장 오고 싶은 나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 수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과거 많은 한국 학생이 미국으로 유학 갔던 것과 달리, 중국의 경제발전과 시장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중국으로 유학을 가는 학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최근에는 중국어를 배우기 위한 어학연수보다는 학위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 투자와 지원으로 중국의 고등교육기관 수준의 향상과 중국이 엄청난 인구나 경제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 2.2 대학간 교류

### 2.2.1 국내 대학의 중국진출 현황

국내 대학의 중국진출은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어 왔다. 목적과 방법, 규모와 활용 범위에서도 조금씩 다른 형태를 지닌 채 국내 대학의 중국 진출이 이루어 졌다. 이는 국내 대학생의 중국 연수와 중국 학생의 국내 대학 유치를 비롯하여, 기술특허를 알리는 창구로서의 기능과 대학간의 문화적 교류를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결국 국내 대학의 중국진출은 첫째, 중국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선제적 투자이고 둘째, 국내 대학의 국제화 및 국내 및 중국 학생의 입학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국내 대학의 중국 진출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려대의 경우는 2004년 10월 중국 인민대와 '고려대학회관' 건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뒤, 2009년 준공식을 갖고 현재 기숙사, 연구실, 강의실 등을 갖춘 '고려대

학회관'을 운영 중이다. 이미 '고려대중국사무소'를 비롯해 '한중국제교류센터' 등도 입주했다. 대진대의 경우도 소주대와 하얼빈 사범대에 현지 캠퍼스를 조성하고, 2005년부터 DUCC(Daejin University China Campus)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성균관대는 2004년 중국 상해의 복단대와 중국전문대학원 신설, 운영을 골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아주대는 중국 베이징 대외경제무역대학에 '아주대 중국사무소'를 설치했다. 한양대는 상하이에 '한양문화원'을 두고 있다.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양대가 보유한 특허와 기술이전 설명회를 개최한다. 거대 시장으로 떠오른 중국을 겨냥한 산학 협력 사업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다. 이밖에 서울대와 한양대는 각각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을 받아 베이징대와 칭화대에 한국어 강의를 개설했다. 건국대는 난징대 등 중국 내 자매학교 12곳에서 '한국유학 예비반'을 운영 중이다. 중앙대도 2008년부터 칭화대 등 6개 대학에 한국어교육을 위한 분원을 설치하고 교육을 진행 중이다. 중국인 유학생 유치는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 대학에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외국교육기관 설립요건 완화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외국교육기관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에 따른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대학의 해외진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력에 비해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2013년 8월 현재 외국의 고등교육기관(대학, 대학원) 유치 현황을 보면 2009년 11월 설립승인을 받아 2011년에 개교한 부산의 독일FAU대학, 2011년 7월에 설립승인을 받아 2012년 인천 송도에 개교한 한국 뉴욕주립대학교(SUNY Korea), 2013년 8월에 설립승인을 받아 2014년 3월 개교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조지메이슨대가 있다. 나머지 MUO를 체결하고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이 있지만 개교 실행여부는 불투명하다. 국내대학의 해외분교설립은 2013년 8월 현재 교육부인가 대학(대학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중국 고등교육기관의 경우 해외에 분교를 설치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하문대학(廈門大學)이 말레이시아에 분교를 설치한다고 발표하면서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북경어언대학(北京語言大學)이 운영하는 사이버 대학 한국입학처가 있다. 그 밖에 청화대학SCE한국캠퍼스, 북경대학교GCEO 캠퍼스의 경우는 특별과정이 운영되고, 남개대학 한국대표부, 발해대학 국제교류학원 한국교류처의 경우 입학생 모집 등의 역할을 한다. 중국의 경우 중국 유학을 준비 중인 한국 유학생을 선점하거나, 혹은 CEO과정과 같은 특별 과정 등을 통해 자신의 대학을 알리고 경제적 수익을 얻기 위해 한국에 대학 관련 기관을 상주시키고 있다.

### 2.3 기타: 언어교육 교류

언어는 인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특히,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교류에 있어 언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언어 교육을 통해 상대국의 언어를 습득할 뿐만 아니라, 문화와 습관, 사상과 역사 등 상대국의 모든 것을 보다 깊고 친밀하게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선진국은 자신들의 언어를 전파하고 교육시키려 노력해 왔다. 이는 단순히 언어에 대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자기 나라의 홍보와 이미지 제고, 교류의 확대 등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측면에서 국가적 이익이 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을 앞세워 세종학당을 세계에 전하고 있고, 중국은 공자를 전면에 내세워 공자학원을 세계 곳곳에 세우고 있다.

#### 2.3.1 세종학당의 중국 진출

과거 선진국이 자국의 문화와 언어를 홍보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하였던 문화원처럼, 일본을 비롯하여 중국도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홍보하고 전파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국의 움직임에 힘입어 한국도 2007년 업무 보고를 하는 기자 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세종학당’의 설립을 발표하였다. 설립 초기에 세종학당의 목적은 상호주의 문화 교류를 통한 국가 간의 협력 확대, 외국 현지인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실용 한국어 교육의 확산, 한국 문화 교류 확대를 통한 언어와 문화 다양성의 실현이었다. 그러나 2010년 체제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설립 목적이 문화 상호주의에 입각한 문화교류 활성화,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용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대표 브랜드 육성 및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종학당은 외국어 또는 제2언어로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고 교육하는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2012년 9월 현재 44개국(유럽 10개국 16학당, 아시아 20개국 56학당, 북아메리카 3개국 7학당, 남아메리카 5개국 5학당, 아프리카 4개국 4학당, 오세아니아 2개국 2학당)에 걸쳐 총 13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90개소는 세종학당, 40개소는 세종교실이다.

세종학당은 설립이후 2010년 22곳, 2011년 60곳, 2012년 90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시아지역만 살펴볼 때 20개국에 56개의 학당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중 중국에 세워진 세종학당은 모두 18곳으로 <표 7>과 같다. 한국도 2007년을 시작으로 2012년 90곳으로 세계에 세종학당이 설립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립과 달리 그 추진현황 및 결과 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이에 대한 운영실태 또한 불투명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이에 대한 관리 및 조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7〉 중국내 세종학당 현황

	중국 세종학당	설립시기	한국협력기관
1	베이징 세종학당 (북경외국어대학교 배훈학당)	2007년 10월	주중한국대사관 문화원
2	북경한국문화원 세종학당	·	·
3	상해한국문화원 세종학당	·	·

	중국 세종학당	설립시기	한국협력기관
4	시안 세종학당 (서안외국어대학교 신서북배훈학원)	2007년 12월	.
5	양저우 세종학당	2007년 3월	영남대학교
6	엔벤1세종학당(연변과학기술대학교)	2007년 7월	.
7	엔벤2 세종학당(연변대학교)	2007년 12월	
8	엔타이 세종학당(노동대학교)	2012년 1월	남부대학교
9	우한 세종학당(화중과학기술대학교)	2007년 4월	.
10	웨이하이 세종학당 (산둥대학교 위해분교)	2007년 4월	.
11	지난 세종학당(산둥사범대학교)	2011년 9월	인하대학교
12	충칭 세종학당 (사천외국어대학교)	2012년 4월	우송대학교
13	치치하얼 세종학당 (치치하얼대학교)	2012년 4월	동신대학교
14	칭다오 세종학당 (중국해양대학교)	2007년 12월	.
15	톈진 세종학당 (천진외국어대학교)	2007년 3월	.
16	하얼빈 세종학당 (하얼빈사범대학교)	2011년 3월	대진한국센터
17	항저우 세종학당 (절강관광대학)	2012년 9월	호남대학교
18	후허하오터세종학당	2008년 1월	세종언어문화활동유한 공사

출처: 각 지역 세종학당 홈페이지<sup>9)</sup>

### 2.3.2 공자학원(孔子學院)의 국내 진출

중국은 공자를 앞세워 중국어와 중국 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공자학원을 세계 각 국에 설립하고 있다. 공자학원은 중국과 외국이 서로 합작하여 건립하는

9) <http://www.sejonghakdang.org>. 검색기간 2013.04.11-06.30. 세종학당 홈페이지에 2013년 7월 4일자로 '2013년 신규 세종학당지정 심사 결과 공고'가 발표 되었다. 이를 보면, 중국에서 4곳이 새롭게 선정되었다.

것으로 2012년 말 기준으로 108개 국가에서 400여 개의 공자학원과 500개의 공자과당(孔子課堂)이 있다. 그밖에도 76개의 국가의 400여개의 대학에서 공자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sup>10)</sup> 그 가운데 2004년 11월 중국은 최초로 공자학원 현판식을 한국의 서울에서 했으며 이를 계기로 세계 곳곳에 공자학원을 세워 꾸준한 발전을 이루었다. 이중 한국에 세워진 공자학원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표 8 〉 한국내 공자학원 현황

	한국 공자학원	설립시기	중국협력학교
1	서울 공자아카데미	2004년 11월	중국국가한관
2	충북대학 공자아카데미	2006년 9월	연변대학
3	우송대학 공자아카데미	2006년 11월	사천대학
4	호남대학 공자아카데미	2006년 12월	호남대학
5	동아대학 공자아카데미	2006년 12월	동북사범대학
6	동서대학 공자아카데미	2007년 4월	산둥대학
7	충남대학 공자아카데미	2007년 4월	산둥대학
8	강원대학 공자아카데미	2007년 4월	북화대학
9	계명대학 공자아카데미	2007년 6월	북경어언대학
10	대불대학 공자아카데미	2007년 7월	청도대학
11	순천향대학 공자아카데미	2007년 9월	친진외국어대학
12	대진대학 공자아카데미	2007년 11월	하얼빈사범대학
13	제주한라대학 공자아카데미	2009년 4월	남개대학
14	우석대학 공자아카데미	2009년 6월	서주사범대학
15	인천대학 공자아카데미	2009년 7월	대련외국어대학
16	한국외국어대학 공자아카데미	2009년 9월	북경외국어대학
17	태성고등학교 공자학당	2008년 11월	석가장 제42중학교
18	자율화산중학교 공자학당	2009년 9월	길림제1중학교
19	경희대학교 공자아카데미	2010년 4월	동제대학
20	안동대학교 공자아카데미	2012년	곡부사범대학

10) 陳海燕, <2012年孔子學院相關報道及研究文獻評析>, 《四川理工學院學報(社會科學版)》(四川: 四川理工學院, 2013年), 第28卷第2期, 81쪽.

공자학원은 중국교육부의 직속기관인 ‘국제한어반’에서 관리하고 있다. 공자학원홈페이지에 소개된 자료를 보면, “공자학원은 중국어를 교육하고,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며, 중국과 세계 각국과의 문화교류와 협작을 강화한다. 또한 중국과 외국의 우호적 관계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발전에 기여하면서, 조화로운 세계를 건설한다”고 되어 있다.<sup>11)</sup> 2010년 10월까지 공자학원은 아시아 30개국 81곳, 아프리카 16개국 21곳, 유럽 31개국 105곳, 미주 12개국 103곳, 대양주 2개국 12곳에 세워졌다. 공자학당의 경우 아시아 11개국 31곳, 아프리카 5개국 5곳, 유럽 10개국 82곳, 미주 6개국 240곳, 대양주 2개국 11곳에 분포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한국에는 현재 18개의 공자 아카데미와 2개의 공자학당이 있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서 보면, 과거 선진국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를 홍보하려 노력하였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그 속도는 매우 빠르고, 범위는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과 중국은 경쟁보다는 협력적 관계로 양국의 문화와 언어를 전달하고 배우는 상호발전과 우호관계의 터전으로 세종학당과 공자학원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 3. 한중 고등교육 교류의 과제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이루어진 한국과 중국의 교육 교류는 교육뿐만 아니라 양국의 문화와 생활 습속을 전하여 이해하게 했고, 경제적 효과를 촉진시켜 양국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였다. 물론 정치적으로도 국가의 안정과 평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과거 한중 교육교류는 일방적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중국에 가서 공부하고

11) <http://www.hanban.org>, 검색기간 2013.05.01-2013.06.30.

배워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교육교류에 약간의 변화가 불고 있음을 앞서의 연구를 통해 감지할 수 있었다. 즉, 중국에서도 적지 않은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고 있다. 한중 교육 교류는 앞으로도 계속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다.

중국은 장기적 경제발전전략에 따른 국내외를 막론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는 고등교육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특히 중국의 경제 발전이 지속되고 G2로서의 경제적 정치적 역량이 확고하게 된다면, 중국의 교육 발전에 힘입어 많은 한국의 학생들이 중국을 찾게 될 것이고, 한국의 대학도 더 많은 관계와 사업을 중국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중국의 공자학원도 보다 내실 있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도정에서 중국은 지나친 민족주의에 빠지거나, 중화중의에 빠지게 되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학생에게 다양한 혜택과 체계적인 관리에 보다 신경을 써서 교류가 보다 활발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한국이다. 교육교류가 교류로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중국학생의 한국 유학도 증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중국 대학의 한국 진출과 교류도 활성화해야 하고, 세종학당의 중국내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중 상호 동반자적 교류가 이루어질 때 우리나라의 유학수지 적자도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향후 양국의 고등교육 교류에 대한 재고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급선무다. 지금 세계는 자국 교육에 대한 투자 증대와 자국으로의 우수 인재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다. 국가 발전에 있어 인재 유치와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의 학생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국가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한국 대학의 경쟁력 제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 중국에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박사과정 유학생을 유치하면 연구역량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은 산업이다. 특히 외국과의 교육교류를 또 하나의 산업으로 인

식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와 실천을 해야 한다. 한국의 2011년 유학수지 적자는 44억1300만 달러(약 5조1464억 원)에 달했다. 반면 중국인 유학생 10만 명을 유치할 경우, 이러한 유학수지 적자를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재정 부담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가 가진 장점을 이용하여 특화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IT기술을 이용하여 인터넷 강의를 개발하거나, 한류를 이용하여 관련학과의 유학을 유도하는 것이다.

셋째, 체계적이고 섬세한 유학생 관리와 정책이 필요하다. 유학을 언제나 선진국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활 습관, 경제적 수준, 문화적 차이, 지리적 거리와 환경 등 다양한 것이 고려대상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언제든지 많은 중국 학생이 유학 오기 좋은 유학 목적지가 될 수 있다. 특히 조기에 유학 오는 대학생들에게 따뜻한 배려와 관심은 나중에 큰 자산으로 되 돌아 올 것이다. 이에 체계적인 유학생 관리와 유학생 정책, 그리고 더 나아가 졸업 후 진로까지 연계된 시스템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에게 유학의 목적은 직업을 선택하여 인생을 설계하는 것임을 감안할 때,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유학생들이 선택한 것이 만족스러울 수 있는 제반여건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 생활 적응도를 이해하고, 진로지도를 통해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는 등 그들에게 최상의 도움을 주는 것이 절실하다.

#### 4. 나오는 말

향후 한중 고등교육 교류는 더욱 전면적이고 다양하게 발전할 것이다. 중국 경제에서 한국이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지만, 한중수교이후 20년이 지난 지금 한·중교역이 없었다면 우리나라가 매년 16억 달러(한화 1조8000억 원)씩 무

역적자를 봤을 수 있다는 조사결과도 나온 것처럼, 한국 경제와 산업에 있어 중국은 매우 중요한 존재다. 지난 20년간 대중국 흑자를 제외할 경우 매년 16억 달러씩 무역수지 적자를 경험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중국 무역흑자는 전체흑자보다 408억 달러가 많아 최근의 국내 경기 회복에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년 전 4%에 불과했던 중국과의 교역량은 그동안 35배 급증했다. 교역량 기준으로 일본(10.0%), 미국(9.3%)을 제치고 최대 교역국 위치에 오른 것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미국, 일본, 홍콩에 이어 제4대 교역국에 올라섰다.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한중간의 관계는 주변국뿐만 아니라 양국간에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중 양국간의 고등교육에 대한 각 국민들의 관심 및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 경제의 발전, 고등교육의 대중화와 한국에서 고등교육기관의 대학 충원을 해결을 위한 외국학생의 유치 전략은 한중 고등교육 교류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킬 것이다. 앞서 고등교육의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한중 고등교육 교류생이 상호 가장 많은 국가라는 것 외에 대한 관리가 철저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단지 고등교육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향후 양국의 우호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발전을 위한 과제이며 상호 협력과 소통 또한 중요함을 시사한다.

#### < 參考文獻 >

- 高明士, 《東亞教育圈形成史論》,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3.
- 교육과학기술부, <정부, 외국교육기관 국내 유치 활성화 본격 추진-우선, 6개 경제자유구역 내 유치 초점>, 보도자료, 2011. 12. 21.
- 김덕삼, <戰國時期 稷下學宮을 통해 본 韓國 大學改革의 과제>, 《중국연구》,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2011.
- 김한규, 《한중관계사 I》, 서울: 아르케, 1999.
- 金海宗, 《동아시아의 비교와 교류》, 서울: 지식산업사, 2000.

- 楊通方,《中韓古代關係史論》,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1996.
- 衛道治主編,《中外教育交流史》,湖南:湖南教育出版社,1998.
- 李庚子,〈韓·中教育交流에 관한 研究〉,《東洋古典研究》,서울:東洋古典學會,2007.
- 이경자,《중국 고등교육사》,과주:한국학술정보,2008.
- 田正平,《留學生與中國教育近代化》,廣東:廣東教育出版社,1996.
- 陳海燕,〈2012年孔子學院相關報道及研究文獻評析〉,《四川理工學院學報(社會科學版)》,四川:四川理工學院,2013年第28卷第2期.
- 한국교육개발원 각 연도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 韓國史研究會編,《古代韓中關係史의 研究》,서울:三知院,1987.
- 韓國教育史研究會編,《韓國教育史》,서울:교육출판사,1980.
- 《南洋商報》,2011年12月6日.
- 《경향신문》,2013년 2월 17일.
- <http://www.sejonghagdang.org> 검색기간 2013.04.01-2013.06.30.
- <http://news.xinhuanet.com> 검색기간 2013.04.01-2013.06.30.
- <http://www.moe.gov.cn>. 검색기간 2013.04.01-2013.06.30.
- <http://www.chinanews.com> 검색기간 2013.04.01-2013.06.30.
- <http://studyinchina.moe.edu.cn> 검색기간 2013.04.01-2013.06.30.
- <http://www.hanban.org>. 검색기간 2013.05.01-2013.06.30

### < 中文提要 >

本研究目的是在深入關注韓中高等教育交流的現況包括學生、學校、語言相關的機構後,尋求韓中高等教育交流的發展方向。1992年韓中交流的開始以來,在教育交流上有巨大的成長。2001年在韓國留學生總人數為6,000名,2011年在韓國留學生總人數為59,317名。與2001年相比,增加了約9.9倍。2001年來華韓國留學人員也16,000名,2010年來華韓國留學人員62,442名。與2001年相比,增加了約3.9倍。根據與2011年和2012年,把在韓國留學生按國籍區分,中國留學生最多,來華留學生中的韓國學生也是最多。現在這兩個國家是學生交流以外,包括韓國大學進行進出中國。這是名目上的學術交流協定以外,包括運行共同學位制,而且步入中國內建立學校的階段。又是世宗學堂進入了中國,中國的孔子學院也進入了韓國。這是貢獻兩國的教育,語言,文化方面的交流。

據了解，現在韓中教育交流是不斷地進行，留學生人數逐步增加。但是出現留學生管理、留學生和本國學生的政策問題、留學生完全問題、留學生職業生涯問題上的不足之處。這是以後在兩國的教育交流上該考慮的項目。

關鍵詞：高等教育、教育交流、留學生、孔子學院、世宗學堂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6. 30.	2013. 8. 4.	2013. 8. 20.	2013. 8. 22.	2013. 8. 31.